

“수술은 몇시에 하나요” 전공의 이탈 사태에 보호자 발동동

이틀째 전공의 집단 이탈...대학병원 혼란 가중 긴급 수술 날짜 잡혀도 시간은 확정 안돼 불안 한숨 늘어가는 보호자...“정상화 도대체 언제쯤”

“오늘 수술하는데 이마저도 몇 시에 하는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틀째를 맞은 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본관 수술 병동 앞 보호자 대기실.

수술실로 가족들을 들여보낸 보호자들은 TV를 통해 송출되는 뉴스 속 시계를 뚫어저려 바라보거나 전장을 향해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질환 등 급한 수술이 필요한 탓에 가까스로 일정이 잡혔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여파가 수술실까지 뚫히고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현재 수술 병동에서는 현장 전공의들이 부족해 수술팀 구성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수술에 대해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들은 “이날 중 반드시 수술한다”는 병원의 안내에만 기대 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한 채 허공을 바라봤다.

장폐색을 앓는 아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낸 최모(69)씨 또한 같은 이유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공의가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곧장 수술대에 올랐을 것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수술 시간을 오해불망 기다리고 있다.

최씨는 “선임 교수가 전적으로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가 부족해 수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수술을 기다리던 중 상태가 악화되면 어쩌나. 수술실 정상화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간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는 사설구급차가 오가며 응급병동에서 나온 환자들을 이송했다.

이들은 응급병동 내 장기 임원 과정에서 상태가 호전된 자들로 요양병원 또는 2차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남대병원으로 도착한 신규 발생 응급 환자들도 위중한 정도에 따라 지역 내 종합병원 응급실로 돌려보내지고 있다.

사설구급업체 소속 한 응급구조사는 “전날만 해도 이 구급차로 6명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모두 다른 병원으로 보내졌다”며 “때문에 전남대병원 등 대학 병원 응급실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듯 하다. 전공의 부족 사태가 응급실까지 번진 여파가 아닌지”라고 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이 나서 전원 조치를 하는 경우는 현재 전체 병동에서 없다. 장기 임원 환자 퇴원과 신규 임원자가 줄어들면서 일부 병동이 비어보이고 경증 환자가 자체 퇴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3차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근무 전공의 319명 중 76.8%인 24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본·분원을 통틀어 전공의 20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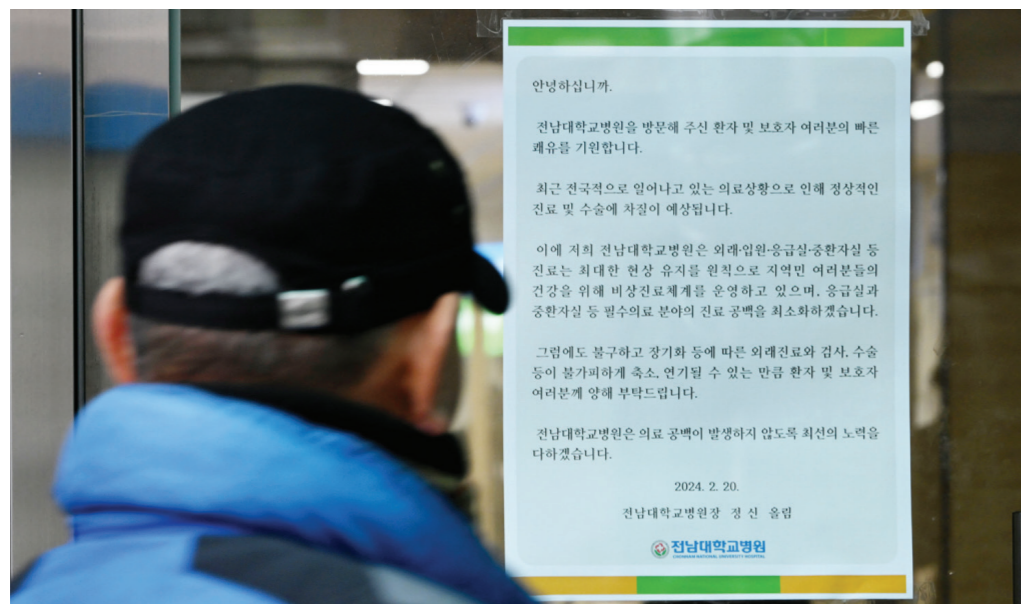
전공의 집단 행동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입원 환자가 전원되고 있다.

조선대병원에서도 전공의 총 142명 중 사직서를 낸 107명이 모두 진료 거부에 동참했다. 복지부는 일선을 떠난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명령에 끝내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등 추가 행정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역시 진료 거부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변영일기자

병원 떠난 광주·전남 전공의 300여명, 대다수 복귀 안 해



전공의 집단 행동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보건복지부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반발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결근 중인 광주·전남 각

급 병원 전공의 300여 명 중 대다수가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자 3차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에서는 전공의 319명 중 84%인 268명(레지던트 192명·인턴 7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부터 전공의 230여 명이 본·분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의료전산망 접속 기록 등으로 미뤄 결근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전공의들부터 업무복귀 명령을 통보했다.

다만 전공의 수십여 명은 근무 사실을 증명할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이 확인돼 업무복귀 명령 통보에서 빠졌다.

병원 측은 결근 중인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시로 시급한 업무만 보다가 다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 측 요청으로 급한 업무만 했을 뿐이라며 사직 의사는 변함 없다는 입장을 전달기도 했다.

결근 중에도 일부는 수시로 업무 참여, 전면 복귀 아닌 듯 '원칙 고수' 정부, 주동자 구속 수사·개별 전공의 기소 방침

조선대병원에서는 전체 전공의 142명 중 사직서 제출자·미승인 휴가자를 비롯해 총 107명이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모두에게 업무복귀 명령이 내려져 있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전날 무단 결근했던 전공의 2명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지역 내 2차 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30명(타 병원 파견자 포함) 중 사직 의사를 밝힌 31명도 이틀째 결근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결근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송달 거부 가능성도 감안, 전공의 개인 연락처로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렸다.

전남 동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인 순천 성가톨릭병원에서도 사직 의향을 내비친 전공의 13명 전원 중 8명이 이를 연속 결근, 업무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정부는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에서 '엄정 수사' 원칙을 거듭 역설했다.

특히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단체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히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면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